

[보도자료]

배포일 : 2021년 11월 17일 (수)

## 에퀴노르와 한국동서발전, 3GW 규모 해상풍력 사업 협력한다

에퀴노르, 17일 한국동서발전과 해상풍력사업 공동추진 및 상호기술교류 업무협약 체결



사진 설명 : 노르웨이 국영 종합 에너지 기업인 에퀴노르와 발전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이 17일 울산 소재 한국동서발전 본사에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선도를 위한 국내 해상풍력사업 공동추진 및 상호 기술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한국동서발전 김영문 CEO, 에퀴노르코리아 자크 에티엔 미셸 대표

**(2021년 11월 17일 수요일)**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 기업인 에퀴노르가 한국에서 추진하는 3GW 규모의 해상풍력 개발 사업에 발전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과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에퀴노르코리아(대표 자크 에티엔 미셸) 와 한국동서발전(사장 김영문)은 17일 한국동서발전에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선도를 위한 국내 해상풍력사업 공동추진 및 상호 기술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상풍력사업 공동추진과 상호 기술교류 업무협약으로 에퀴노르와 한국동서발전 양사는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강력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2034년까지 재생에너지를 60GW 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에 포함된 12GW의 해상풍력 발전 목표에 힘을 보탬 것으로 기대된다.

에퀴노르의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총괄하는 폴 아이덜하임(Pål Eitrheim) 부사장은 "한국은 향후 10년 동안 글로벌 해상풍력 분야에서 선도적인 시장중의 하나가 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라며, "에퀴노르는 한국동서발전과 함께 장단기적으로 정부 목표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 최초의 상업용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하고자 한다"라며, "에퀴노르는 한국 공급업체들과 수십년간 이어온 협력과 경험으로 한국기업들의 높은 품질 수준과 능력을 알고 있다. 에퀴노르가 보유한 수십년의 해상에너지 개발 경험과 한국이 갖춘 세계적 수준의 공급망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에퀴노르에게 이번 업무협약은 에퀴노르가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는 파트너와 함께 사업 초기부터 대규모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부문의 성장전략을 한번 더 확인하는 의미도 갖는다.

에퀴노르는 한국 해안의 수심으로 볼 때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을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에퀴노르는 한국에서 추진하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위해 50년의 해상에너지 개발 경험과 운영관리(O&M)를 포함한 해양 에너지 개발 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에퀴노르 신재생에너지 부문 총괄 임원인 폴 아이덜하임(Pål Eitrheim) 부사장, 프로젝트 개발 부문 총괄 알네 시그비 니룬드 부사장, 에퀴노르 코리아 자크 에티엔 미셸 대표와 한국동서발전 김영문 CEO, 조상기 사업본부장, 홍동표 재생에너지처장 등이 참석했다.

# # #

## 한국에서 에퀴노르의 활동과 목표

에퀴노르는 2014년 한국 지사를 설립했다. 에퀴노르는 대규모 해상 플랫폼과 대형 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 조선소 및 공급 업체들과 협력해왔다. 북해와 전세계의 해양 경험과 프로젝트 관리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에너지 기업 에퀴노르는 한국의 부유식 해상풍력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선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에퀴노르는 부유식 해상풍력 개발을 선도하는 기업이다. 세계 최초, 최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에서 검증된 하이윈드 기술을 활용해, 한국에서 추진중인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사업에서 한국 해양 환경과 여건에 적합한 반잠수식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 에퀴노르 소개 (Equinor ASA): 가치 중심의 기업, 에퀴노르 - [equinor.com](http://equinor.com)

에퀴노르는 에너지 전환 선도를 목표로 하는 노르웨이 국영 종합 에너지기업이다. 1972년 설립 이후 21,000여명의 임직원이 전 세계 30여개국에 진출해 석유, 가스, 풍력, 태양광 에너지를 개발 및

공급하고 있다. 유럽 2 대 가스공급 기업이기도 하다. 석유와 가스 포트폴리오 최적화와 재생에너지 성장 가속화, 탄소포집과 수소 분야에 대한 선도적인 개발로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세계 최대의 해양 에너지 개발 기업으로 탄소포집 및 저장기술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2017 년 북해에서 세계 최초의 상용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인 하이윈드 스코틀랜드(Hywind Scotland, 30MW)를 영국에 건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 최대의 부유식 해상풍력단지인 하이윈드 탐펜(Hywind Tampen, 88MW)을 노르웨이에 건설하고 있다. 에퀴노르는 대륙붕 해양에서 축적한 자원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에너지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에퀴노르는 안전, 균등, 지속가능발전에 가치를 두고 있다. 에퀴노르는 노르웨이 정부가 67%의 지분을 소유한 공기업으로 오슬로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EQNR)

###